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 pp.49-6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6. 28.

통일교의 교육론과 아동교육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 약〉

이 글은 통일교 교육론의 근거와 구조 및 내용 그리고 아동교육을 논한 것이다. 먼저, 통일교 교육론의 근거로는 통일교학, 인간학, 교육학을 살펴보고, 구조와 내용으로는 교육의 이념(개체 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과 교육의 형태(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 및 인간상(인격자, 선민, 천재)을 다루었다. 그리고 교육의 보편성과 개별성 및 균형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 등을 논의했다.

다음으로는 통일교의 아동교육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아동을 초등학교 어린이로 규정하고, 교육목표를 종교공동체의 기초적인 의례에 참여하여 공동체적 신앙을 형성하는 것과 공동체적 신앙을 닦고 비전을 꿈꾸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을 논의하였다.

교육은 끊임없이 현재의 인간상을 반성하고 미래의 이상적 인간상을 꿈꾼다는 면에서 종교와 통한다. 이 글은 통일교 교육의 현재 실태를 논하기보다는 통일교 교육의 이론적 구조와 내용을 중심으로 논술한 것이다.

핵심 주제어: 심정교육, 규범교육, 개별교육, 보편교육, 균형교육

I. 서 론

교육은 사람이 사람다움을 형성해가는 행위이다. 교육은 인간의 품격을 향상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향한다. 종교교육이란 인간의 종교성을 함양하는 행위이다. 종교교육은 종단의 배경과 무

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주로 특정 종단이 주관하는 종교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정 종단의 종교교육은 그 종단의 이념이나 교리에 입각하여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고자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 글은 먼저, 통일교의 종교교육론을 살펴본다. 필자는 통일교 교육론의 근거가 되는 통일교학, 인간학, 교육학을 살펴보고자 한다.¹⁾ 특정 종단의 이념과 교리는 그 종단이 추진하는 교육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준다. 교육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므로 교육활동에서는 학습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학습자 이해에 관한 사항을 인간학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교육 활동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를 교육학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통일교의 아동교육을 논한다. 이는 통일교의 교육론을 아동이라는 특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아 적용한 것이다. 여기서는 통일교 교육의 핵심적 형태를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II. 통일교 교육론

1. 통일교 교육론의 근거

1) 통일교학

통일교의 이념과 교리를 통일원리라고 한다. 통일원리의 핵심은 창조와 타락과 복귀에 관한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한 창조와 창조본연의 세계,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타락한 세계로부터 창조본연의 세계로의 복귀 등을 설명한다.²⁾

통일원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기에 하나님은 부모이고 인간은 자녀라고 규정한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적 존재이고, 하나님을 닮은 개성진리체이다. 인간은 누구나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의 경지 곧, 신인일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³⁾ 이러한 길을 걷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되었고 인간은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사랑하여

1) 창시자가 생존하여 활동 중인 통일교의 경우 기초 문헌이 계속 출판되고 있다. 필자는 통일교의 기초 문헌으로는 2000년 이전에 출간된 『원리강론』과 『통일사상요강』에 근거하여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4). 이하 『원리강론』으로 표기함.

3) 『성경전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태복음 5장 48절 참조.

기쁨을 얻으려 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오히려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恨)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을 해원해 드리고 창조본연의 이상과 소망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다. 이러한 이상적 인간상을 가정단위에서는 효자로, 국가단위에서는 충신으로, 세계단위에서는 성인으로, 지상계와 천상계를 아우르는 천주단위에서는 성자(聖子)로 구분할 수 있다.

창조주의 창조목적은 피조물에게는 존재목적이 된다. 통일원리는 인간의 존재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본다.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려면 완성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를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의 기록에 근거하여 개체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이라는 삼대축복 완성의 상태로 규정한다.⁴⁾ 삼대축복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성취해야 하는 과제이다. 인간이 자신의 책임분담으로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였을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인생길이란 타락성을 벗고 책임분담을 다하여 삼대축복을 성취해야 하는 길이다.

이러한 연유로 통일교의 신앙은 내적으로는 성장의 길이고 외적으로는 천국창건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인은 진리를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점차 자기와 물질 중심한 생활로부터 전체와 하나님 중심한 생활로 전환하며, 신앙적 관점에서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할 때 더욱 성숙한다. 고생 가운데 지극정성을 들이다보면 품격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2) 인간학

교육의 결과는 학습자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타난다. 교육자가 학습자로 하여금 성숙하도록 안내하려면 학습자를 깊이 알아야 한다. 교육자가 학습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육은 다르게 나타난다.

통일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 인간, 타락한 인간, 복귀과정의 인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창조본연의 인간인 본성적 인간에 초점을 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개성진리체이고, 완성을 향해 성장하는 존재이며 자신을 창조해가는 창조적 존재이고, 우주적 존재이다.⁵⁾ 또한 성상과 형상의 통일체이자 양성과 음성의 통일체인 신상적 존재이며, 심정과 이법과 창조성을 지닌 신성적 존재이며, 개체목적과 전체 목적을 지닌 연체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⁶⁾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타락한 죄인이다. 타락한 인간은

4) 창세기 1장 28절에 천지 창조가 끝난 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통일원리에서는 이를 삼대축복이라고 본다(『원리강론』, 44-49쪽).

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창조원리와 기독교론 참조.

6)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출판사, 1993)의 원상론 참조.

하나님과 부모-자녀의 관계를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심정에 무지하며 형제자매인 인류의 사정에 무감각하다. 이러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사랑과 행복의 천국이 아니라 미움과 고통의 지옥이 되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섭리에 의해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인류구원 섭리는 창조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복귀섭리이다. 인류의 역사란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전개되어 나온 역사이고, 인류가 부모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자취이다. 결국 복귀과정의 인간이란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그리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인간이해 방식은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에 초점을 둔다. 통일원리는 인간의 성장을 3단계로 구분하지만, 교육의 현장에는 더 구체적인 인간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 중에서 심리학이 학습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학습자가 배움에 열의를 지니는 것은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심리학 중에서도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탐구한다.⁷⁾ 통일교는 자체의 교육론 정립에 필요한 인간이해를 위해 심리학을 비롯한 일반 학문과 대화하는 열린 자세를 지지한다.

물론 종교적 성장 발달을 기존의 심리학적 지식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 논하는 인간의 정신적 성장은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한정되나 종교적 성장 발달은 여기에 종교성이나 영성 또는 거룩성을 더하기 때문이다. 즉 종교교육의 관심은 지정의 발달을 넘어 성(聖)의 발달을 지향한다.

종교교육에서 종교적 발달이론은 인간에 대한 종교적이거나 영성적 이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학문이 된다. 대표적 종교 발달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울러(J. W. Fowler)의 신앙발달이론은 에릭슨(E. Erikson), 피아제(J. Piaget), 콜버그(L. Kohlberg) 등의 이론을 토대로 한다. 그는 신앙발달을 6 단계로 구분했다. 파울러는 신앙적 삶이란 궁극적 실재의 사랑 안에서 생동하는 성장의 과정이고, 종교교육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한 우주로 나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촉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다음 단계로의 발달은 이전 단계를 넘어서는 초월의 과정이라고 하여 신앙의 초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발달은 인간의 정신-신체적 발달을 터전으로 하며, 발달은 신체적 발달과 사회적 관계의 확장 및 신앙적 성숙이 연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한편, 모란(G. Moran)은 제도와 신념으로서의 종교보다는 태도와 신앙으로서의 ‘종교적’ 성향 또는 종교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전체 발달과정을 3단계 6시기로 구분하는 종교교육발달론을 제시했다. 그의 이론은 종교와 교육의 긴장 상태를 넘어 양자의 상호보완적 조화를 지향했고, 다종교 사회에서의 성숙과 발달의 의미를 교육의 중요한 사회적 4형태

7) William C. Crain 저, 서봉연 역, 『발달의 이론』(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6); L. A. Hjellev, D. J. Ziegler 저, 이훈구 역, 『성격심리학』(서울: 범문사, 1987) 참조.

8) J. W. Fowler, *Stages of Faith*(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1). 이재은 역, 『신앙의 단계들』(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가정, 학교, 직업, 여가)와 관련하여 제시했다. 그의 이론에는 발달론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⁹⁾

필자는 발달이론이 통일교 교육론의 정립을 위한 인간이해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종교심리학이나 종교적 발달이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3) 교육학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한 학문인 교육학은 주변 학문의 도움을 받아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등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육학은 교육활동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육의 방법과 평가, 교사론 등을 다룬다.

통일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본래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성장기간을 거쳐 완성되어야 했다. 성장기의 인간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고, 본래 가정을 터로 하는 것으로서, 창조본연의 인간성 계발을 위한 교육이다. 이 교육은 종교적 진리에 의한 교육이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교육이다. 사랑을 밑바탕으로 눈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심정의 교육이다.¹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는 생명의 안내자, 인류의 영원한 지도자, 제자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 심정의 중보자, 본이 되는 자, 사랑을 가르쳐주고 위하는 자, 자기 자녀 이상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자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고 바른 인생길을 안내하는 스승이다. 이러한 통일교 교사관은 종교적 성직자에 대한 이해와 다르지 않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하늘의 뜻을 깨닫고 천도를 따라 살아가며 인류의 본보기가 되는 성현의 상과 아주 가깝다. 또한 가정의 중심인 부모, 학교의 중심인 스승, 단체의 중심인 '주인'이 사랑을 실천하는 3대 주체인데, 이들이 인류가 따라야 할 본보기이다. 한편 개인과 직결되는 양심이 중요한데, 양심은 각자의 스승이다. 마음과 양심과 본심이 스승이요 부모요 하나님이다.¹¹⁾

통일교 교육은 인간의 완성을 추구한다. "천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¹²⁾는 말씀처럼 인간의 성숙과 완성은 천국 창건의 전제조건이다. 종교교육은 종교적 감화와 각성에 의한 인간의 종교성 또는 영성을 형성하려는 활동이다. 통일교 교육은 인간의 영성적 측면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성의 함양을 주목한다. 통일교 교육론은 교육학의 주요 주제가 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육의 방법, 교사 등에 관한 이론을

9) Gabriel Moran, *Religious Education Development*(Minnesota: Winston Press, Inc., 1983); 사미자 역, 『종교교육 발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10) 이재일, 「성약 말씀에 나타난 교육의 의미」, 『통일신학연구』 6집(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2002), 225-246쪽.

11) 이재일, 「성약 말씀에 나타난 교사에 대한 이해」, 『통일신학연구』 5집(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2000), 187-214쪽.

1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뜻길』(서울: 성화사, 1978), 193쪽.

참고하여 형성되었다.

2. 통일교 교육론의 구조와 내용

1) 교육이념, 교육형태, 이상적 인간상

통일교 교육론의 내용에서 핵심적 사항은 『통일사상요강』의 교육론에 기술되어 있다.¹³⁾ 통일사상의 교육론은 하나님을 닮아 인간이 창조된 것을 창조의 상사성(相似性)이라고 표현하면서, 교육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인도하는 노력으로 규정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으려면 3대축복을 실현해야 한다.¹⁴⁾ 제1축복이란 개체완성으로서 인간이 심정을 중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생심이 주체가 되고, 생존 활동을 추구하는 욕심이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제2축복이란 가정완성으로서 인간이 천리법도를 따르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제3축복은 주관성 완성으로서 인간이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3대축복은 통일교 교육론에서 교육이념이 된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개체완성을 위해서는 심정교육을, 가정완성을 위해서는 규범교육을, 주관성완성을 위해서는 주관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를 교육의 형태라고 한다.¹⁵⁾

심정교육은 하나님과 인간의 심정 일치를 위한 교육이다. 심정은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욕망”이고 사랑은 “심정적 행위”이다.¹⁶⁾ 이는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승화한 것이다.¹⁷⁾ 심정의 하나님에 의해 인간은 심정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심정의 세계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규범교육은 인간이 양성과 음성의 조화에 의해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법적 존재가 되어서 천도에 따라 생활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은 우주질서의 축소체로서, 천도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¹⁸⁾ 주관교육은 지식교육, 기술교육, 체육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관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대상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 및 주관의 주체인 인간의 몸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된다.¹⁹⁾

3대 교육이념에 따른 교육의 3형태를 통하여 양성하려는 이상적 인간상은 인격자, 선민

13) 위의 책 교육론 참조;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14) 위의 책, 346-348쪽 참조.

15) 위의 책, 353쪽.

16) 위의 책, 798쪽.

17) 주재완, 『심정의 개념에 대한 소고』, 『통일신학연구』 11집(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2007), 69-83쪽.

18)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교본』(서울: 통일사상연구원 출판부, 1994), 365-366쪽.

19) 위의 책, 367-3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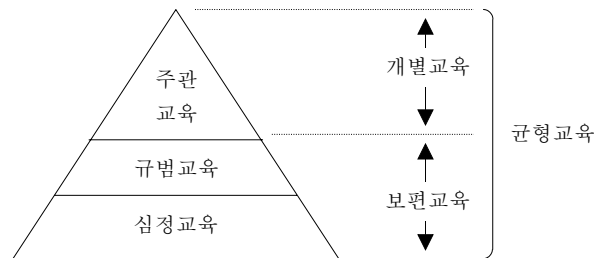
(善民), 천재이다.²⁰⁾ 인격자란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의 심정이 하늘의 심정과 일치된 존재이다. 선민이란 천리법도 곧,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선한 사람이다. 인격자이자 선민인 사람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타인과 사정이 통하여,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사람이다. 천재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¹⁾

통일 교육론의 기초	상사성의 창조 (창1: 27)		
	3대축복 (창1: 28)		
	생육: 제 1축복	번식: 제 2축복	주관: 제 3축복
교육의 이념	개체완성	가정완성	주관성완성
교육의 형태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 - 지식, 기술, 체육
이상적 인간상	인격자	선민	천재

〈그림 1-1〉 통일교육론의 요점

2) 교육의 보편성과 개별성 및 균형교육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에 이들을 보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심정적이고 규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관교육에서는 개인의 소질과 취향에 따라 교육적 관심 영역이 다르므로 교육의 분야와 내용도 학습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교육은 개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또한 주관교육은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의 기반 위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보편교육과 개별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²²⁾



〈그림 1-2〉 교육의 보편성과 개별성

20)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371쪽. 물론 이러한 인간상은 기존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이재일, 『통일사상의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의 사적 고찰』, 『통일사상연구논총』 15(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7).

21)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교본』, 163쪽.

22)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370쪽.

이러한 견해는 현대 교육이 지식과 기술의 전수에 치중하여 심정과 규범과 주관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함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불균형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지식과 기술 위주의 교육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3형태는 이해의 편의상 구별하여 설명한 것이지만 각기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정교육과 규범교육과 주관교육은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는 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사상에도 “규범교육은 심정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관교육은 심정교육 및 규범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들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서술되어 있다.²³⁾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타락성 청산과 본성의 완성이라는 두 목표를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다.²⁴⁾ 통일교 교육은 타락한 인간이 진리에 접하여 사탄분립노정을 출발할 때부터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계된다. 이 과정에서 초점은 심정과 규범의 교육에 있다. 특히 심정의 체율이 중요하다. 심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 요소이고 “심정은 생명의 원천”²⁵⁾이다. 그래서 심정을 체율해야 인간의 타락성이 청산되며, 3대축복의 실현도 심정 체율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1) 교육목표의 설정

교육목표란 학습자가 성취해야 하는 이상이고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변화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각 학습단계에서 기대하는 실현 가능한 학습자상을 말한다. 교육목표는 교육을 위한 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해당 종교의 교리와 이념 그리고 학습자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구체적 목표는 해당 교육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행동적 시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목표 의식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교육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통일교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1986년도에 출판한 교회학교 공과에는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a.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도록 돕는다.
- b. 메시아를 맞이하여 그의 말씀과 인격과 심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하여 개성을 완성하도록 이끌어 준다.
- c. 참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이웃과 한 형제의 사랑을 경

23)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366과 369쪽.

2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241쪽.

2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뜻길』, 217쪽.

협하도록 하게 한다.

d. 이 땅에 새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서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을 실현하는, 즉 천국 창건의 기수가 되도록 하게 한다.²⁶⁾

이는 당시의 교회학교가 지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메시아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섭리역사와의 관계에서 정립되어야 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교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그러므로 삼대축복을 실현한 인간인, 인격자, 선민, 천재가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2)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육내용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경험해야하는 것으로서 흔히 문화로부터 선택하여 조직한 지식체계로 나타난다. 교육에서 목표와 내용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교육목표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에 기준이 되고, 교육내용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내용이 선정될 수 있는 영역을 교육과정의 범위라고 한다. 통일교 교육과정의 범위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관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1986년에 간행한 교회학교 공과에서는 이를 하나님과 세상, 메시아와 나, 새로운 공동체, 새 역사 창조로 설정하여 신앙의 핵심개념을 포함하도록 하였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육내용이 되는 지식이나 학습자의 경험활동이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이 자체의 논리체계나 난이도 또는 내적 질서에 따라 알맞게 조직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통일교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a.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인 창조, 타락, 복귀에 연결되어야 한다.
- b. 삼대축복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 c. 세계의 주요 종교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어야 한다.
- d. 학습자의 필요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 e. 가급적이면 생생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²⁷⁾

(3) 교육의 방법

교육방법은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교육자는 인생의 과정이 어떠해야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학습자가 바람직한 인생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교사가 가진 일상의 경험과 신앙적 체험은 교육의 방법을 결정하는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지닌 개인적 삶의 경험과

2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고등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서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1986), 7쪽.

27)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248-249쪽.

신앙적 체험은 개인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포괄하지 못하는 교사의 개인적 삶에 바탕을 둔 가르침이란 매우 협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사교육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확장함으로써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육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 방법을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학습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기보다는 온 몸으로 경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의 지적 능력이나 연령 및 기타 제반 여건, 학습 환경, 학습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종교교육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노래, 율동, 창작활동 또는 체험학습, 탐구학습, 발견학습 그리고 대화와 토론, 설교, 강의, 기도 등 아주 다양하다.²⁸⁾

Ⅲ. 통일교의 아동교육

1. 아동교육의 목표

통일교 교육에서 인격자, 선민, 천재는 한 평생의 삶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일뿐이지, 구체적 목표가 아니다. 구체적 목표는 궁극적 목적을 향한 생애과정에서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한다. 이는 발달의 단계별로 또는 교육 단위별로 설정된 발달과업들의 전체적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목표는 발달단계별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개인이 단계별로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어가면 결국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 목표를 체계화하는 데에는 통일교학, 인간학, 교육학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통일교학이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자 방향으로 삼는다. 여기에 가정을 중심한 4대심정권에서 부모, 형제, 부부, 자녀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가정과 사회, 국가, 천주에서 효자, 충신, 성인, 성자로 성장해 나아가야 함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학의 내용들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본성적 인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인간이다. 현실적로는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본연의 상태로 복귀하고 완성의 경지로 성장해가야 하는 인간이다. 그리고 발달과정에 있는 인간에 대한 단계별 이해도 중요하다. 셋째, 교육학적으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야 한다. 종교교육은 일반 교육보다 더욱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 많아서, 교육방법의 개발에

28)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263-264쪽.

도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하여, 필자는 단계별 통일교 교육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본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을 초등학교 어린이로 본다. 아동기는 초등1부와 초등2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를 상정해보았다.

* 초등1부(7-9년): 공동체적 신앙 형성-구성원으로서 기초적 의례에 참여하기

- 1) 하나님 이야기(창조-타락-복귀)와 기초적 원리 이해
- 2) 참부모님과 축복가정 안에서 확장된 가족으로 살아가기
- 3) 교회 공동체에서 소속감 느끼기
- 4) 종교의례의 습관화

* 초등2부(10-12년): 공동체적 신앙을 닦고 비전 꿈꾸기

- 1) 신앙공동체의 전통과 유산 경험하기
- 2) 신앙공동체의 전통과 비전을 통해 자아 형성하기
- 3) 신앙공동체 비전속에서 미래 자신의 비전 꿈꾸기
- 4) 종교의례의 생활화와 그 종교의례의 의미를 묻기²⁹⁾

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정교육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인 심정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 즉 사랑은 심정의 표현이고 심정적 행위인 것이다.³⁰⁾ 내적 심정은 사랑의 행위에 의해 외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된다. 주체의 심정은 대상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표현된다. 심정의 교육방법으로는 심정 이해의 방법과 심정 체휼의 방법이 있다. 전자는 심정을 설명하고 소개함으로써 심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후자는 주로 사랑의 실천과정을 말한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원천인 심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³¹⁾

아동에 대한 심정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정교육은 인간과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므로, 정감의 발달 과정을 먼저 생각해보자. 인간에게서 정감은 경험과 인지적 학습이 교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한다. 경험만 있을 뿐 인지적 학습 과정은 거의 없는 아기는 경험을 쌓아간 후 나중에 인지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심정도 정감처럼 경험과 인식의 순환과정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도 인지발달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먼저 경험하고 나중에 이해하는 방식으로 심정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심정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가운데 자녀에게 전달되고 체휼될 수

29)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384쪽.

30)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798쪽.

31) 위의 책, 354-364쪽.

있다. 부모가 고생을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을 사랑할 때, 자녀는 부모의 심정적 세계를 느끼게 된다. 부모의 심정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심정은 학생에 대한 배려로 나타난다. 그것은 학생 인격의 존중과 그 인격 성장을 향한 배려, 학생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염려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부모와 교사에 의한 사랑의 실천으로 심정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주로 부모와 스승의 심정으로 자녀와 제자의 심정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교육은 심정으로 심정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정교육이란 심정을 교육한다는 의미와 교육을 심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³²⁾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심정교육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이 심정일체되는 관계의 회복이며,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교육의 방법은 심정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³³⁾

인간사회에서 심정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으로 분화되어 표현된다. 이러한 면에서 사랑에 대응하는 심정도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자매의 심정, 자녀의 심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심정과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심정권이라고 한다.³⁴⁾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은 심정권의 터전이다.

심정교육의 현장으로는 가정, 학교, 사회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정교육의 현장은 가정이다. 가정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식구로 구성되어 사랑을 주고받는 심정교육의 터전이다. 특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은 고난스런 상황에서도 꺾여지지 않았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사랑과 심정을 길러가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가정은 천국생활의 훈련장이 되고 천국의 기지가 되어야 한다.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교육

규범이란 구체적 행위의 규칙이 되는 덕목과 같은 개념이므로 규범교육을 덕목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규범이나 덕목의 교육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도덕교육이다. 도덕교육이란 도덕적인 성격을 지니고 선악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여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규범교육으로 부르는 이유는 도덕과 윤리의 기본을 강조하는 교육을 표현한 것이다. 도덕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이런 자녀를 대상으로 구체적 생활 장면에 해당하는 행위 규범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면에서 규범교육은 도덕교육의 기본이 가정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32) 이재영, 『심정교육론 연구』(서울: 성화사, 1989), 14쪽.

33) 위의 책, 16쪽.

34)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798쪽.

있다. 규범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인간은 규범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규범인이라고 하지 않고 선민(善民)이라고 한 이유는 특정 사회의 기준에서 표현되는 규범적 인간 또는 도덕적 인간의 의미를 넘어 천리법도를 따르는 선주권의 국민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³⁵⁾

도덕교육은 덕목론적 접근과 자율론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덕목론적 교육은 덕목의 내면화를 위해 도덕적 원리와 지침, 규범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는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도덕적 사례를 말할 뿐이다. 자율론적 교육은 자율적 사고 형성을 위해 도덕적 사고를 촉진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의 과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도덕적 탐구의 형식을 가르치는데, 도덕적 실천과 멀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도덕적 규범을 실천하면서 자율적으로 도덕적 사고를 할 수 있으려면 양자를 모두 활용하는 도덕교육이 필요하다.³⁶⁾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단순한 형태의 인과론적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 아동은 추상적 사상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자유·정의·사랑 같은 추상적 이념에 근거한 사고전개를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에서는 추상적인 것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단순한 것을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학교 도덕교육에서도 반영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기본적 규범의 습관화에 초점을 두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규범의 의미 파악과 생활 적용에 집중한다. 도덕적 사고의 형성은 중학교에서 강조하는 사항이다.³⁷⁾ 그러므로 아동 종교교육의 경우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신앙생활의 기본 규범의 습관화에 초점을 맞추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신앙적 기본 규범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감안하여 아동이 시각, 청각, 촉각을 사용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활동, 흥미와 관심을 일으켜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방법, 가족과 종교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위주로 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35) 이재일, 『통일사상의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의 사적 고찰』, 51-52쪽.

36) 조난심, 『인성 교육과 도덕 교과서』, 『철학과현실』27(서울: 철학문화연구소, 1995), 겨울, 75쪽.

37) 조난심, 『도덕적 습관과 도덕과 교육』, 『교육개발』 83호(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3-4월호, 9쪽.

IV. 결 론

통일교 운동은 인류 문명이 기초가 되는 종교, 사상, 철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재검토로 나아간다. 그래서 개개인의 의식 개혁뿐만 아니라 세계체제의 재구축을 촉구한다.

통일교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삼대축복으로 설명한다. 삼대축복이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인간만이 감당해야 하는 과제라고 본다. 그것을 달성하였을 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참인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 본연의 가치는 인간이 삼대축복을 완성하여 참인간이 되었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삼대축복을 이루지 못한 오늘의 인류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의 인간일 뿐이다.

개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삼대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 통일교는 교육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삶에서 실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어린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심정의 분위기에 젖어 몸으로 실천하며 느끼면서 심정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의 기본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아동이 삶의 초기에 접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그의 종교적 인격 형성에 매우 소중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가정의 부모뿐만 아니라 종교 세계의 지도자는 부모의 심정과 종의 몸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구성원에 앞장서서 집단과 전체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부모나 지도자의 정성의 터 위에서 자녀나 구성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뜻길』. 서울: 성화사. 1978.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교육부. 『고등부 성화공과 제1권: 하나님의 나라』. 서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1986.
- 이재영. 『심정교육론 연구』. 서울: 성화사. 1989.
- 이재일. 「성약 말씀에 나타난 교사에 대한 이해」. 『통일신학연구』 5집.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2000.
- 이재일. 「성약 말씀에 나타난 교육의 의미」. 『통일신학연구』 6집.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2002.
- 이재일. 「통일사상의 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의 사적 고찰」. 『통일사상연구논총』 15.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7.
-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 조난심. 「도덕적 습관과 도덕과 교육」. 『교육개발』 83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3-4월호.
- 조난심. 「인성 교육과 도덕 교과서」. 『철학과현실』 27.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1995. 겨울.
- 주재완. 「심정의 개념에 대한 소고」. 『통일신학연구』 11집.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2007.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교본』. 서울: 통일사상연구원 출판부. 1994.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Grain, William C., 서봉연 역.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6.
- Fowler, J. W., *Stages of Fai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1. 이재은 역. 『신앙의 단계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Hjelle, L. A. & Ziegler, D. J., 이훈구 역.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7.
- Moran, G., *Religious Education Development*. Minnesota: Winston Press, Inc. 1983. 사미자 역. 『종교교육 발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원고접수: 2009년 5월 17일 1차심사: 6월 8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이재일

- ① 전공: 교육학 · 신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순결대학 순결학과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인격교육, 개화기의 한국교육
 - ③ 주요논저: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통일종교교육개론』
 - ④ E-mail: leejaeil21@hanmail.net
-

Abstract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and Child Education

Lee, Jae-il

Sun Moon University

The first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foundations, structure and contents of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The second purpose is to describe Unification child education.

First, I discuss the foundations,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is established based on Unification studies, the theory of human nature and education. Therefore, I consider them as the foundations of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The essential point of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consist of three great ideals of education, three forms of education, and an image of ideally-educated person. I also describe the concepts of universal education, individual education, and valanced education. I discuss the goals, contents,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Second, I discuss Unification child education. In this paper, I consider Unification educational objectives for child as formation of the faith of religious community through attending the basic rituals, and modeling and dreaming the faith of religious community. I also describe the education of heart and the education of norm for child.

Key words : The Education of Heart, the Education of Norm, Individual Education, Universal Education, Balanced Education